

‘렉스턴 스포츠 칸-코란도’ 雙龍의 비상, 쌍용차의 환호

쌍용차 SUV 신형 잇따라 선보여
3월 내수 1만대 판매... 18.8% ↑
16년 만에 1분기 전체판매 최고치
북미 등 글로벌 시장 공략 가속화

‘SUV 명가’ 쌍용자동차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인기로 국내 시장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

3일 완성차업체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내 승용차 도매판매 11만4383대 중 세단은 5만6924대로 49.8%를 차지했다. SUV는 5만1608대(45.1%), 밴형 차량(CDV)은 5851대(5.1%)로 집계됐다.

세단 판매 비중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이 사상 처음이다. 세단 판매량은 전년 동월(6만1336대)보다 7.2% 줄었고, SUV 판매량은 반대로 전년 동월(4만8989대)보다 5.3% 늘었다.

이같은 SUV 인기와 함께 쌍용차는 ‘뉴티플 코란도’와 ‘렉스턴 스포츠 칸’ 등 신형 모델을 잇따라 출시하며 라인업을 확대, 판매량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쌍용차는 지난 3월 내수 시장에서 1만 984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전년 대



쌍용차 렉스턴 스포츠 칸.

비 18.8% 증가세를 기록했다. 내수 판매는 렉스턴 스포츠와 코란도 등이 잇달아 출시되며 지난 2015년 12월(1만 1351대) 이후 39개월 만에 기록한 월간 최대 실적이다.

올 들어 3월까지 1분기 전체 판매는 내수가 지난 2003년 1분기(3만9084대) 이후 16년 만에 1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작년 같은 달보다 13.7% 증가했다. 1분기에만 신차 2종을 쏟아내며 내수 시장에서 14% 증가세를 보였다.

쌍용차는 코란도, 렉스턴 스포츠 칸 등 새 차종에 대한 출시 확대와 신형 시장 공략 가속화로 세계 판매 물량을 한

층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작년 쌍용차는 9년 연속 내수판매 성장세를 이뤘고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하며 15년 만에 업계 3위로 올라선 바 있다.

현대차도 대형 SUV 팰리세이드와 소형 SUV 코나의 인기로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출시한 팰리세이드는 3월 6377대 판매됐으며, 소형 SUV 시장의 성장에 따라 코나는 전년 동월보다 10.5% 늘어난 4529대 팔렸다.

반면 세단 판매량은 주력 모델의 노후화가 심한 르노삼성과 기아차의 판매 부진 영향이 컸다. 르노삼성 세단 판매는 지난달 3138대로 전년 동월 대비

38.0% 급감했다. 주력 모델인 SM6 판매가 35% 줄었고 SM5와 SM7 판매량도 각각 76%, 33% 줄었다.

기아차 세단 판매량도 주력 모델인 K5 판매량이 31.3% 급감하며 전년 동월 대비 12.6% 감소한 1만9251대로 집계됐다. 현대차는 그랜저 판매량이 소폭 줄었지만 제네시스 브랜드 판매가 증가하면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군산공장 폐쇄로 판매가 급감했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보다는 5.2% 늘어난 4579대의 실적을 올렸다.

SUV 성장 분위기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3월 미국 시장에서 SUV를 앞세워 판매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기아차는 북미전용 대형 SUV ‘텔루라이드’의 신차 효과로 판매량이 크게 뛰었다.

기아차 미국판매법인(KMA)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아차 판매량은 5만5814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했다. 3월 호실적에 힘입어 1분기 누적 판매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6% 늘었다. 텔루라이드는 지난 3월 기아차 전체 판매 증가분(5169대)에 맞먹는 5080

대가 팔렸다. 텔루라이드 개발 단계부터 북미 소비자 취향을 반영한 기아차의 전략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의 판매도 늘었다. 현대차는 지난달 미국에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6만1177대를 판매했다. 코나, 투싼, 싼타페로 구성된 현대차 SUV 라인업이 2만9920대 팔렸다. 이는 전년 대비 38% 늘어난 수준으로, 전체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에 달한다. 특히 소형SUV 코나(7015대)의 판매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한편 쌍용차는 최대 자동차 시장인 북미 시장 공략도 준비하고 있다. 다만 미국에 공장이 없다는 점에서 미국의 수입차 관세 조치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고 자동차 산업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현지 공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미국의 수입차 관세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서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시행 조선업 ‘시운전 업무’에 발목

대우조선해양, 의견일치 난항
이달 말까지 협상 마무리해야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조선업에서는 예외인 듯하다. 선박을 인도하기 전에 가동이 가능한지 시험하는 시운전 업무의 경우 근무시간 책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달 노사 합의로 시운전 업무도 하루 8시간 근무로 간주하는 ‘간주근로제’에 합의한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아직 의견을 일치하지 못했다. 유예기간인 이달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대우조선은 현재 시운전 업무 인력을 제외하고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은 인력을 더 투입해 교대 근무로 이를 해소하고 있다. 충분한 휴식시간을 주어 근무시간을 조절한다는 취지다.

시운전은 일주일동안 해상에 떠다니기 때문에 근무 시간 책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노사 합의를 이루거나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하는 게 상책이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시운전 물량이 많아질 경우 탄력근로제를 실시해야 근무시간 조절이 가능하다는 게 조선업계의 입장이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기업은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 시행 시까지 계속해서 처벌이 유예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회기가 오는 5월까지인 임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의 모습

시국회 기간 내에 법이 통과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주52시간제 계도시간은 지난달 31일로 종료됐다. 이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 이 제도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시정명령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지난해 7월 도입하면서 현장 혼란을 대비해 처벌 유예(계도) 기간을 뒀다. 본래 지난해 12월 말이었던 계도 기간은 올해 3월 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그러나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했다고 해서 곧장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 내에 문제를 개선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정부가 부여하는 시정 기간은 기본 3개월에서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해 최대 6개월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 준수 여부와 관련해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여 곳에 대해 예비 점검하고 이중 장시간 근로 우려가 높은 600곳을 선정해 8월 말까지 근로감독을 벌일 예정이다. /정연우 기자 yw964@

실제 주택에 전시... 유럽고객 ‘LG홈’에 찬사

LG전자

스페인 ‘LG 이노페스트 유럽’ 개최
3개층에 프리미엄 신제품 대거 선보

유럽 소비자들이 LG의 가전 솔루션 ‘LG 홈’에 찬사를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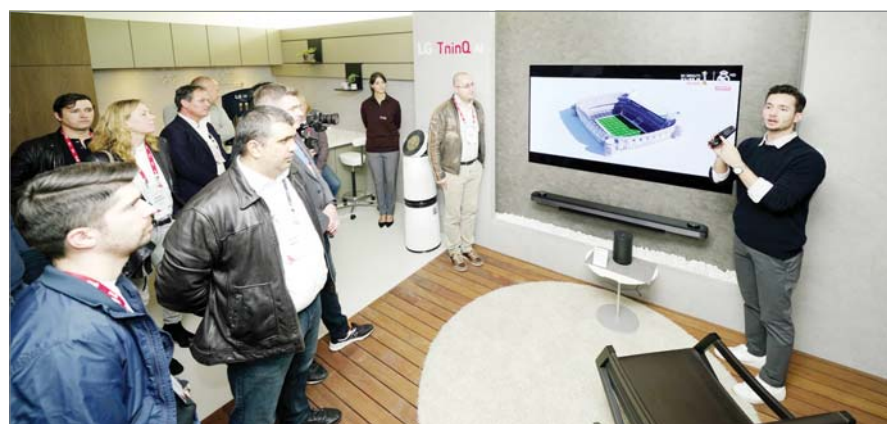
LG전자는 2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LG 이노페스트 유럽’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노페스트 유럽은 ‘LG 홈’으로 실제 주택을 꾸민 공간이다. 거실과 주방, 세탁실 등 3개층에 프리미엄 가전을 배치해 실제 LG전자 가전을 사용하는 모습을 소개했다.

전시 공간은 LG 씽큐가 탑재된 가전과 LG 시그니처, LG 오브제 등 LG전자 주력 제품들로 꾸며졌다.

또 2019년형 올레드 TV와 나노셀 TV, 엑스튠 오디오와 수제맥주제조기 홈브루, 스타일러 등도 함께했다.

스페인 건축가 홀리오 투자는 전시공



LG전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LG홈을 소개하는 LG이노페스트 유럽을 열었다. /LG전자

간을 둘러본 후 “고객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 흥미롭다”며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와 같이 고객의 삶을 깊이 고찰한 결과”라고 말했다.

LG전자는 현지 소비자를 겨냥해 완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스페인 프로축구 라리가를 관망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경기장에는 대형 LED 전광판과

디지털 사이니지 등 LG전자의 디스플레이 제품 1000여개를 설치했다.

폴란드 대형 유통사 미디어마크트 마르신 로사티 CEO는 “LG전자는 항상 고객에 대해 생각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며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프리미엄 가전들은 유럽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용 기자 juk@

에어부산 부산·대구~코타키나발루 신규 취항

에어부산은 오는 5월부터 부산과 대구에서 동남아 대표 휴양지인 코타키나발루 노선에 신규 취항한다고 3일 밝혔다.

에어부산은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될 시즌(3월 31일~10월 26일) 항공 스케줄에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노선에 신규 취항하며, 부산-울란바토르 등 일부 노선은 증편하여 운항한다.

에어부산의 부산-코타키나발루 노선은 다음달 22일부터 매일 1회 운항하며, 대구-코타키나발루 노선은 다음달

15일부터 주 4회(수·목·토·일) 운항한다. 운항 기종은 에어버스 321-200(195석) 기종으로 운항한다.

대구-코타키나발루 노선은 대구공항에서 처음 개설되는 신규 노선으로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교통 편의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타키나발루 노선의 예약은 3일부터 가능하며, 특가 항공권 프로모션은 오는 8월부터 진행된다.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은 오는 7일부

터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을 주 2회에서 주 3회(화·금·일)로 증편해 운항한다. 울란바토르 노선 증편을 통해 올 하계부터는 만성적 좌석난도 해소될 전망이다.

대구공항의 주요 노선도 증편 운항한다. 다음달 13일부터 대구-타이베이 노선은 기존 매일 1회 운항에서 매일 2회 운항으로 증편되며 대구-다낭 노선은 주 2회에서 주 5회로 대폭 증편하여 운항한다. 특히 이번 증편되는 대구-타이베이 항공편은 대구공항의 첫 낮 시간대 운항하는 타이베이 항공편이다.

/정연우 기자